

# 전남도, 내년 본예산 10.7% 편성... 중단없는 재정지원 방침

올 본예산비 3.5% 늘어난 규모 작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유례없는 세입결손에도 선제 대응



전남도가 내년 본예산을 10조7044억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 10조3381억보다 3663억 늘어난 규모다. /전남도

전남도는 10조7044억원 규모의 2024년도 본예산을 편성해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10조3381억원보다 3663억원(3.5%)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3073억원(3.3%)이 증가한 9조5956억원, 특별회계는 590억원(5.6%)이 증가한 1조1088억원이다.

전남도는 대내외 경제 상황의 악화로 올해 본예산 대비 5000억원 내외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긴급재정보다는 더 따뜻한 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미래투자, 민생안정 행복시책, 청년응원, 도민 제일의 가치 안전에 대한 중단없는 재정지원에 방침을 뒀다고 발표했다.

유례없는 세입 결손에도 불구하고, 재정 충격을 완화하면서 중단없는 사업 시행이 가능한 것은 지난해부터 착실하게 준비해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652억원과 지방교부세 효율적 편성 등 선제적인 대응 결과라고 분석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2조3137억원, 지방교부세 1조2700억원을 추계하고, 국고보조금 5조3155억원, 지역개

발기금 1500억원과 지방채 1500억원 등으로 편성했다.

내년도 중점분야 주요 사업으로 '미래투자'는 반도체 분야 인력양성과 교육용 장비 구축 등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는 호남권 반도체 공동연구소에 69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바이오인력 양성을 위한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교육장 및 실습시설 리모델

링 사업에 30억원, 글로벌 여수 스마트그린 산단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에 97억원 등을 신규 반영해 미래 첨단전략 산업을 육성한다.

주요 세출 분야별로는 미래전략·에너지 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지원 등 일자리·경제 분야에 2820억원, 농수축산업 분야에 1조8054억원, 청년과 노인 등 복지사업에 3조3869억원을 투자한다.

또 문화관광 분야에 4026억원, 안전·소방·SOC에 1조8351억원, 기후위기 대응 등을 위한 환경·산림에 8447억원을 투입한다.

전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역점시책, 도민 행복시책, 청년 지원 등에 역점을 두었다"며 "전남 대도약을 이루는 미래 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부산항만공사 창업 지원 플랫폼 입주사 공모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가 오는 17일까지 해운·항만·물류 분야 창업 및 스타트업 지원 플랫폼 '1876 BUSAN'의 입주기업을 공모한다.

부산항의 개항연도인 1876년에 착안하여 명명된 '1876 BUSAN'은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산광역시가 공동 운영하는 시설이다. 해운·항만·물류 분야의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기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입주공모를 통해 최대 7개의 예비창업자, 창업 7년 미만의 중소기업 등에 대해 평가를 거쳐 최대 2년 간의 입주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부산=장병호 기자

### 경북도 산림청 '학교숲 우수사례' 선정

경북도는 산림청 주관 '2023년 학교숲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활용·사후관리 분야에 봉화 물야초등학교가 '최우수 학교숲'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산림청장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학교숲 우수사례 공모전은 학교숲 조성과 적극적인 사후관리에 대한 우수 사업자를 발굴해 학교숲이 전국적으로 더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이 숲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숲 조성 및 관리·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경북=장영우 기자



상주시는 지난 10일 경북도청에서 개최된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농정평가 최우수상' 기관수상 및 '경북 농업인대상' 친환경부문, 농촌공동체부문에서 각각 수상했다. /상주시

## 상주시, '농정평가 최우수상' 기관수상 민관 합동 농업정책 실효성 인정받아

경북도, 도내 22개 시·군 대상 선정 6개 분야 예산확보·사업실적 등 평가

상주시는 지난 10일 경북도청에서 개최된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농정평가 최우수상' 기관수상 및 '경북 농업인대상' 친환경부문, 농촌공동체부문에 수상했다.

경북도는 매년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경분야 전반에 관한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평가 내용은, 농업정책, 농식품유통, 친환경농업, 축산정책, 농촌활력, 특수시책 등 6개 분야의 예산확보 및 사업실적, 시책 발굴 등이다.

시는 상주시가 경기침체에 따른 농

산물 가격하락 등 대내외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의 구조 개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고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통합마케팅 추진 등 민관이 합심해 이룬 결과로, 상주시의 농업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상주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첨단 ICT 농업추진과 기술접목을 통한 농업 생산성 및 품질향상, FTA 등 시장 확대 및 다변화로 농산물 수출확대에 나서고 있다. 또 치유농업 육성 등 농촌의 가치 재인식 등 '국가 국민의 생명창고 농업상주'를 슬로건으로 농업·농촌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상주(경북)=장영우 기자 ycyw57@

## 창원시, 직접 호출하는 '누비다 버스' 시행

부·울·경 최초 도심지역 운행

창원특레시(시장 홍남표)는 오는 22일부터 부·울·경 최초로 도심지역에 수요응답형(DRT) 서비스인 '누비다 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요응답형(DRT) 서비스는 지난 6월 10일 시행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의 하나로, 정해진 노선과 시간표에 맞춰 이용했던 기존의 시내버스와 달리 시민이 직접 호출하여 정류장과 정류장 사이를 이동하는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규제 완화·법령개정을 통해 최근 전국적으로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사업이다.

누비다 버스 시범사업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로부터 ICT 규제 샌드박스 특례(도심지역 DRT 운행)를 지정 받았다. 창원중앙역~중앙대로~창원병원 구역 내 54개 버스정류장을 대상으로 22일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 6개



창원시가 오는 22일부터 시민호출형 '누비다 버스'를 시범운행한다. /창원시

월간 플랫폼 사업자 ㈜스튜디오 갈릴레이와 동양교통, 신양여객이 소형 승합차 총 3대를 운행한다.

시는 창원대로, 원이대로, 창이대로 3개 교통축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도 좁은 격자형 도시구조에 따라 그간 시내버스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도심지역에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광역교통시설, 중심업무지역, 의료시설, 상업시설 간 대중교통 연계 환승 체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창원(경남)=장병호 기자 metrobusan1@

## 부산시, 데이터 기반 위케이션 사례 공유

'위케이션과 디지털전환' 포럼 소개된다.

부산에서 일과 휴가를 합친 '위케이션' 분야의 데이터 기반 디지털 전환과 유기적 협업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포럼이 열린다.

부산시는 14일 부산빅데이터혁신센터에서 '데이터 기반 위케이션과 디지털전환'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부산시와 부산테크노파크가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디지털 전환(DX) 포럼'의 11번째 행사다.

포럼에서는 위케이션 관련 산업 구조와 부산의 현재 상황을 데이터로 살펴본다. 데이터 기반 위케이션 스타트업 창업 사례와 유기적 협업을 통한 디지털전환의 효과적 활용 방안 등을

소개된다.

특별분과에서는 '부산 지역 주류/수산 가공식품 데이터 분석 사례'를 주제로 이충수 제로투윈파트너스 디렉터가 발제에 나선다. 이충수 디렉터는 공공·기업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당면한 비즈니스 이슈 해결을 위한 데이터 분석 컨설팅 전문가로, 주류 판매 동향 분석 및 시각화 사례, 수산 가공식품 소비 동향 분석 및 시각화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신창호 부산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이번 포럼이 지역 기업과 스타트업이 데이터 기반 위케이션과 디지털 전환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 부산독립영화제, 닷새 동안 63편 소개

오는 16일부터 개막

'제25회 부산독립영화제'가 오는 16일부터 닷새 동안 영화의전당, BNK부산은행아트시네마 모퉁이극장, 무사극장 등에서 열린다.

전자음악가 최혁(PULSECOM)의 공연으로 시작되는 개막식은 메이드인 부산 경쟁작 '어린 겨울'에서 좋은 호흡을 보여준 주인공 서하림, 이하

람 두 배우의 사회로 진행된다.

개막작은 올해 영화제를 통해 최초 공개되는 3편의 부산독립단편 신작이 선정됐다. 이강욱 감독의 '김밥이예요!', 장예림 감독의 '시월', 박천현 감독의 '배우님은 무슨 역할을 하고 싶으세요?' 등 3편은 모두 '2022 프로젝트 인디부산'을 통해 제작됐다.

이어 닷새 동안 총 63편의 독립영화가 소개된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 진주시 '반려동물 문화행사' 개최

진주시는 오는 18일 신안동 잔디광장과 충무공 동진주종합경기장 야외공연장에서 '2023 진주시 반려동물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진주시 반려동물 문화행사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시민의식 배양과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열린다. 그동안 거리, 교통편 등의 문제로 반려견을 동반하는 행사에 참가가 어려웠던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는 동·서부권으로 나누어 2개의 행사장에서 동시시간대에 개최한다. /진주(경남)=장병호 기자